



**“감독님 건배”** 지난 4일 광주 첨단지구 카페에서 열린 타이거즈 OB 모임에서 김용웅 전 감독(사진 왼쪽에서부터)과 김봉연 극동대 교수, 임재준 전 팀닥터, 최윤범 전 단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김용웅 김봉연 김준환 조종규 김종모 ...

## 광주에 모인 타이거즈 전설들

“나이 드셨다고 감독님이 술을 안 드시니 재미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그렇게 막 하면 쓰나. 팔씨름 한번 해주세요!”

19의 역사를 함께 쓴 타이거즈 전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억을 나눴다. 지난 4일 첨단지구 한 카페에서 타이거즈 OB 모임이 열리면서 전구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이거즈 출신 야구인들이 광주에 집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봉연 회장과 송유석 총무를 중심으로 프로와 아마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환·신동수·이광우·서창기·김종모·방수원, 조종규 KBO 심판위원장과 문승훈 심판위원, 최해식 해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2007년 자리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김용웅 전감독까지 참석하면서 프로 야구 30년의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났다.

“모임을 하면서 그동안 불러주지 않던 나 이제야 불러준다”며 웃음을 보인 김용웅 전 감독은 “9번의 우승을 했던 곳이다. 우승의 역사가 있고 또 18년을 지내면서 늘 먹는 것에서는 질리지 않았던 곳이다. 점심때도 나누어서 고풍을 먹고 왔다”고 야구 고향을 찾은 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겪은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 OB모임 30년 추억 나눔

김용웅 전 감독

“우승하는 것이 전통 계승”

최윤범 전 단장

“다음 모임부터 야구 하자”

김봉연 회장

“타이거즈 발전 도움줄것”

소개했다.

김 전감독은 “첫 우승 퍼레이드를 한 뒤 임재준 팀 닥터와 최윤범 단장과 함께 임 닥터네 집으로 갔을 때 내려와왔는데 고가 도로에서 사고가 났었다. 차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는데 하마터면 황천길을 갈 뻔 했다”며 18년을 함께 했던 임재준 닥터와 최윤범 단장과 ‘왕눈이’ 이상윤과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감독 제의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는 제자의 질문에는 “어떻게 하건 어떻게 해. 당연히 감독 해야지”라고 밝혀 좌중에 웃음을 선사했다.

김 전감독은 또 “타이거즈 전통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우승하는 것이다”며 “예전에는 배고픈, 절실한 야구를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게 다르다”고 고향팀 사랑함에 오르는 애제자 선동열 감독과 야구 후배들에 대한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모임의 발전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된 조종규 심판위원장이 직책의 공정성을 이유로 자리를 고사하면서 김봉연 현 회장이 연임하기로 했고, 특별 이벤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윤범 전 단장은 “오전에 골프모임이 있었는데 골프 모임도 좋지만 야구인들의 자리인만큼 다음부터는 야구를 하면 서 친목을 다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관들께도 즐거운 이벤트가 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봉연 회장은 “마무리 훈련이 시작되면서 선동열 KIA 신임감독을 비롯해 프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명의 회원들이 자리를 하지 못했다. 아쉽게도 하지만 1년을 마무리하면서 기본 좋은 모임이 됐다. 프로야구와 타이거즈의 발전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제1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 8R <무등경기장 야구장> 막강 재규어스 장단 10안타 ‘불꽃’

### 슬러거스·전남대 OB·재규어스·드래곤즈 지왕리그 4강 티켓

무등기 야구대회 지왕리그 4강 팀이 가려졌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1회 무등기 광주 전남 사회인야구대회 8주차 경기가 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렸다.

지왕리그 8강 토너먼트로 전개된 8라운드에서 슬러거스, 전남대 OB, 세한기업 재규어스, 승천 드래곤즈가 4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1·2경기는 1점차의 팽팽한 승부가 전개되면서 시간 제한으로 6회까지만 진행됐다. 브라더스와 맞붙은 슬러거스는 7-6으로 4강행을 확정지었고, 전남대 OB는 대한 슬러

거스를 역시 5-4, 1점차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세한기업 재규어스는 나이너스와의 3경기에서 장단 10안타를 몰아치며 11-4로 대승을 거뒀다. 재규어스의 볼타자 이태훈은 1회초 첫 타자로 나와 중견수 키를 넘기는 안타로 홈까지 파고들면서 러닝 홈런을 기록했다.

승천 드래곤즈는 에스컴 스카이를 6-0 영봉승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한편 용산 A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왕리그 8강전 4경기는 경기장 사정으로 연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1경기  
 브라더스 221001-6  
 슬러거스 15001X-7  
 △슬러거스 유재영
- ◇2경기  
 대한슬러거스 100030-4  
 전남대 OB 011021-5  
 △슬러거스 변영선
- ◇3경기  
 세한 재규어스 1032221-11  
 나이너스 3010000-4  
 △슬러거스 홍성준 △홈런 이태훈(1회1점·러닝 홈런)
- ◇4경기  
 승천 드래곤즈 0022110-6  
 에스컴 스카이 0000000-0  
 △슬러거스 윤성현



**김하늘 KYJ골프 우승** 6일 레이클스 제주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이태일리-KYJ골프 여자오픈에서 11언더파 205타로 우승한 김하늘(BC카드)이 우승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카이머 HSBC 우승 최경주 16위에 그쳐

세계남자골프랭킹 6위 마르틴 카이머(독일)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HSBC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카이머는 6일 중국 상하이의 서산 인터내셔널 골프장(파72·714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무려 9언더파 63타를 몰아치며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역전 우승을 거뒀다.

작년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과 올해 1월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 우승의 여세를 몰아 한때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카이머는 9개월여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상금 120만달러를 받았다.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프레드릭 아랍손(스웨덴)은 1타를 줄이는데 그쳐 준우승(17언더파 271타)에 머물렀다. 최경주(41·SK텔레콤)는 3타를 줄여 공동 16위(9언더파 279타)로 대회를 마쳐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며,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대회를 주최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던 최경주는 한 주를 쉬 뒤 16일 호주에서 개막하는 프레지던트컵에 세계연합팀의 일원으로 출전한다.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와 황정곤(19)은 나란히 1오버파 289타를 쳐 공동 4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롯데제이티비**  
www.LOTTEJTB.com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유일한 여행사입니다.

**여행 상담 및 문의 1577-6511**

☎ **親切 목포점** 061)285-7420

**LOTTE JTB**  
Travel & Life

**무안 공항 '직항 전세기' 특선**

여행지	기간	항공료	비고
▶ <b>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b>	4월/5일	799,000~	11/15, 22, 29 / 12/6, 13, 20, 27
	4월/5일	829,000~	11/15, 22, 29 / 12/6, 13, 20, 27
	4월/5일	1,160,000~	11/15, 22, 29 / 12/6, 13, 20, 27
▶ <b>마카오 (홍콩)</b>	4일	799,000~	11/15, 22, 29 / 12/6, 13, 20, 27
	4일/5일	849,000~	11/15, 22, 29 / 12/6, 13, 20, 27
	5일	899,000~	11/15, 22, 29 / 12/6, 13, 20, 27
	4일/5일	899,000~	11/15, 22, 29 / 12/6, 13, 20, 27

여행지	기간	항공료	비고
▶ <b>유럽</b>	8일	1,490,000~	11/21(화), 24(금), 25(토), 29(화)
	8일	1,590,000~	11/18(화), 19(수), 23(토), 25(토)
	10일	3,390,000~	11/14(화), 21(화), 28(화), 29(수)
▶ <b>동남아</b>	6일	649,000~	11/16, 17, 18, 19, 20, 21, 22, 23, 25, 26
	4일/5일	699,000~	11/1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5일	729,000~	11/15, 16, 18, 19, 20, 21, 22, 25, 26
▶ <b>스페셜</b>	9일	3,490,000~	11/19(토),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9일	3,690,000~	11/15, 16, 17, 18, 19, 20, 21, 22, 25, 26
	4일	999,000~	11/14, 17, 18, 19, 20, 21, 22, 25, 26
▶ <b>남태평양</b>	4일/5일	849,000~	11/25(토), 26(일), 29(수), 30(목)
	4일/5일	899,000~	11/25(토), 26(일), 29(수), 30(목)
	10일	3,390,000~	11/25(토), 26(일), 29(수), 30(목)
▶ <b>미주</b>	5일/6일	999,000~	11/24(금), 25(토), 26(일), 29(수), 30(목)
	5일/6일	1,290,000~	11/25(토), 26(일), 29(수), 30(목)
	7일/8일/9일	1,390,000~	11/27(일), 28(월), 29(화), 30(목)

**· 상담 및 문의처** ▶ 광주권: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첨단/상무/월드컵/수완점), 운암점, 북구점 ▶ 전북권: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전주/전주덕진/군산점), 전주중앙점, 익산점 ▶ 전남권: 롯데마트- (여수/여천점), 순천점